

배 포 일 시	2020.04.06(월)	KOSDAQ 064550
보 도 요 청	배포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기획팀 부장 이역수(042-930-8677)	

바이오니아, 카타르에 코로나19 진단시스템 및 진단키트 50억 공급계약 체결

-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50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 바이오니아, 분자진단검사용 장비 18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핵산추출시약 공급
- 한국가스공사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계약 성사

(주)바이오니아(대표이사 박한오)는 카타르 국영기업 Qatar Petroleum(QP,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코로나19 분자진단을 위한 장비와 키트 50억 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에 의해 바이오니아는 카타르 페트롤리엄에 ExiPrep™ 96 Lite, Exicycler™ 등 분자진단장비 18대를 포함해 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 핵산추출시약을 공급한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자회사 QP Medical Services Department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해 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의 성사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1974년 설립된 카타르의 국영석유회사로, 의료서비스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카타르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와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양 기관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그동안 가스공사와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맺어 온 우호적인 관계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영역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오니아의 우수한 분자진단 기술력으로 카타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바이오니아는 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와 관련해 유전자추출장비와 추출용시약, 유전자를 증폭해 분석하는 Real-Time PCR장비와 분자진단키트를 토털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며 “회사가 공급하는 분자진단용 장비는 감염성 질병 외에도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성병, 결핵 등 회사가 개발한 다양한 30여 종의 진단키트를 활용한 다양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